

“100세 시대 노후는 임실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경로당 시설 강화 사업 등 맞춤형 효심행정 최우선

맞춤형 효심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실군이 올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65세 이상) 인구는 9,600여명으로 전체 군민의 31.8%를 차지하고 있어, 맞춤형 효심복지 행정에 남다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임실군은 지역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사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3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임실을 소재지에 지하1층과 지상 3층 684여평 규모로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된다.

그동안 임실읍과 관촌면에 노인복지관이 있기는 했지만, 협소한 장소와 낙후시설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군은 특별교부세(6억원)와 특별조정교부금(7억원)을 각각 확보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또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시설보강작업도 강화해



임실군이 올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로당을 찾은 심민 군수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간다. 지난 해 343개에 달하는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과 물품구입비로 9억을 확보,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인다.

특히 군은 지난 해 대비 냉·난방비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6억원을 확보했으며, 양곡도 개소당 1포씩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및 독거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노인생활시설(5개소)과 재가시설(5개소) 및 장기요양기관(16개소)에 대한 예산 26억원을 확보했다.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라는 기조로 노인일자리 정책도 확대한다. 지난 해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2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올해는 노인일자리 180개로 확대, 총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간을 월 27시간에서 36시간으로 크게 확대했으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식사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131명을 대상으로, 21개소 독거노인 공동겨우제를 운영 중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특성성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효심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교통, 복지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축산업 새활력 불어넣는다

순창군, 축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농가 경쟁력 제고

순창군이 올해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 42억여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축산농가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이 투자하는 축산업 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육성, 축종별 맞춤형, 축산 관광 육성, 방역 및 재해지원, 축산기반 조성 분야 등 60여개 사업이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등 환경변화 요인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군은 우선 농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친환경농업을 축산분야로 확대한다.

현재 관내 축산농가 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62가구, HACCP 인증농가는 41가구, 동물 복지농가는 27가구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인증비 지원, 무항생제 구입 지원비를 꾸준히 늘려 친환경인증 농

가 150농가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축종별 명품화사업도 진행한다. 군이 집중육성하는 축종은 흑염소로 올해 사육두수가 도내 1위인 1만3,938두에 이른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축산현대화사업과 토종흑염소 종축구입, EM 생균제 보급사업도 병행 지원한다. 한우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등 13개사업에 6억여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젖소 착유시설세척제 지원, 모돈갱신지원사업, 양풍 화분공급 지원사업 등 축종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 명품축산물 유통 및 판매망 구축과 6차 산업형 관광지 역할을 할 축산진흥센터가 올해 6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팔덕면 구룡리 630만㎡에 들어섰으



며 축종별 정육판매장과 가공작업장 기준 음식점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강진산과 민속마을 승마장을 연계한 관광지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실현한 농축산과정은 “축산업의 내외부 환경요인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종별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축산농가가 한우 1만8,161두, 젖소 809두, 돼지 3만1,440두, 닭 238만2,577수 등을 사육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자금부족 농민 ‘1%저금리’ 희소식

순창군, 상반기 새농촌육성기금 20억원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새농촌육성기금 20억을 지원하기로 해 농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다.

새농촌육성기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나 새로운 소득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저리 용자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1% 저금리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20억이다.

군은 새로운 소득사업에 나서려는 농민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내에 용자 지원을 완료하기로 하고 오는 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새농촌육성기금 용자 신청을 받는다.

용자금은 농업인에 한해 3년 이내 상환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 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확정하며,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농가의 소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순창군 농민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파주의보에 노지 월동작물 빨간불

배수관리·피복 등 관리 당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가을에 파종한 식용보리와 녹비(綠肥)작물인 보리, 호밀 그리고 이탈리아 안 라이그라스 등의 노지(露地) 월동작물 관리를 위해 웃거름을 제 때에 주고 물빠짐이 불량한 지역에서는 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 월동작물 가운데 보리의 경우 동해(凍害)를 입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에서 다음해 3월 사이이다.

생육이 정지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 사이의 동해온도는 영하 12℃~17℃이지만 생육 재생기인 3월에서 4월 까지의 동해온도는 영하 2℃~15℃로

이때에 오는 갑작스런 한파는 보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늦게 파종하여 적정 일 수가 확보되지 않은 포장은 빗집이나 왕겨 등으로 피복해 보온과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질소시비는 줄이고 인산, 칼리 비료를 증시해 동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특히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배수구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토지가 추운 겨울동안 얼었다가 눈이 녹는 시기인 2월 중순~3월 상순에 토양의 수분침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기 쉽고, 알개 파종된 것은 뿌리가 끊기고 생장점이 땅 표면으로 노출되어 얼거나 말라죽게 되므로 복토(覆土)를 해주어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대포차량 근절·체납액 징수 총력

남원시는 1월~2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차량 미반환된 번호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포차량 근절 및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8일 기준으로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번호판은 90건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체납액은 3,658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22건, 1년 초과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68건이다. 현재 미반환된 번호판은 폐차 업소에 입고 또는 사실상 폐차 및 도난 등으로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차량은 소유자의 납세태만 등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폐차 업소 등에 입고된 차량의 번호판을 폐기·정리 하였으며 1년 이상 장기보관으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징수촉탁 건에 대하여 징수촉탁 해제 및 번호판을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였다.

또한 읍면동에 영치된 차량에 대한 장기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이를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변전소 신설 주민설명회

후보지 물색 결과 등 밝혀

한전 중부건설본부는 지난 9일 순창군 중산면 죽전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순창변전소 신설에 따른 후보지 물색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154kV 순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9월에 확정되어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중부건설본부 김성환 차장과 운영화 과장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물색중인 변전소 및 철탑 후보지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한 공금증을 사례를 들어가며 영상자료로 자세히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노력했으며 변전소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향후 행정절차와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주민 중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중부건설본부와 행정에서 참석한 관계자가 자세한 답변을 해 공금증을 풀었다.

중부건설본부는 이날 중에 최적 후보지에 대한 인허가 등 지장 유무를 순창군에 조회하고 변전소 후보지에 대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철탑부지, 선하지의 군 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6월까지 마친 후 7월에 입지확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전소와 철탑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실군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해 총 4,6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는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가구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임실도주 공이파트 신규입주자에 한해 지원한다.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방법은 입주대상자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청 건축팀(640-2298)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